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막 내린 '94 전교인 가족수련회

- '우리 가정의 천국화'를 생각해 본 수련회 -

'94 전교인가족수련회가 예정대로 지난 7월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삼척산업대학교에서 있었다.

「하나님 나라와 가정공동체」라는 주제 아래 열렸던 이번 수련회는 주요 프로그램이 천국을 선포한 새벽기도회와 가정생활의 지침을 제시한 부흥회와 특강으로 짜여져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고 상처난 부분에 대해 발견할 뿐 아니라 가정을 천국화 하는 일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특별히 동시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삼일간 계속된 다섯개의 특강은 관심사에 따라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어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고도 실제적인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평범한 진리들에 대해 새롭게 돌아보며 각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헌신에의 결단들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600명 남짓의 성도가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예년에 비해 전교인의 수련회 참석율은 낮은 편이었으나 인원이 적어서인지 질서를 지키는 면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은 예년에 비해 원활한 편이었다고 평가되었다. 본부의 마이크를 통한 안내나 강제적인 동원이 거의 없이 순서들이 진행되었으며 모포나 모기향 등의 공급과 회수가 혼란없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정리 정돈도 모두의 자발적이고도 익숙한 솜씨로 신속히 마무리 되었다.

또한 수련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예전의 축제와 같았던

분위기는 찾아 보기 어려웠으나 기도하기 위해 틈을 얻으려는 많은 성도들의 간절함이 차분한 수양회를 가능케 했다고 본다.

일부 프로그램이 시간과 진행방법에 있어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큰 혼란없이 충실히 진행되었으며 많이 할애된 자유시간 속에서 묵상과 성도간의 교제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교회학교별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나 부서별 수련회도 예년에 비추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비교적 알차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되었다.

3박 4일간 삼척에서의 수련회는 글자 그대로 피서(避暑)였다. 활동하기에 마침 적합했던 서늘한 기후는 더위와 도시생활에 지친 성도들에게 커다란 휴식과 위안이 되었다.

이제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생활과 함께 가지 못한 교우들에게 수련회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이 남았다.

그리고 수련회의 준비와 진행을 맡았던 이들은 다음을 위해 이번 수련회를 세세하게 평가해 보고 고쳐야 할 것, 미진했던 것에 대한 건설적인 보완책과 좋았던 것들은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가 일년에 한 번 치루는 단순한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장로교회 '94 전교인 가족수련회



◆선발대원의 글

그 은혜 미리 맛보며

노창훈(대학부)

- * 일정 - 21일 목요일 4시 교회 도착. 짐을 싣고 6시에 출발.
출발인원은 모두 여섯명 (네 분의 집사님과 대학부 서준호와 나)
- 22일 금요일 새벽 2시. 삼척 도착.
- 22일 오전 6시에 짐차 도착, 일 시작.
- 22일 오후 1시 세분의 장로님 도착
- 23일 계속된 작업, 작업들
- 24일 동대교회에서 예배 드림
- 25일 새벽 2시 제2차 선발대 도착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가족 수련회는 내게 그 어느 때 보다도 긴 수련회였다. 21일 목요일 짐을 싣고 떠난 선발대 6명은 금요일 새벽이 되어서야 삼척산업대학교에 도착했고 아침 9시에 짐차가 도착하자마자부터 일을 시작했다. 숙소로 사용할 강의실마다 의자를 옮기고 바닥을 깔고 방충망을 치고, 화장실마다 샤워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더운 시간대를 피하느라 밤 11시 쯤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했다.

나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간 준호도 평소에 해 보지 못한 일이라 무척 힘들었지만 집사님들의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얻는 감동 때문에 내내 마음이 넉넉했다.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눈에 비친 집사님들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몸 바쳐서’ 일하시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누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해도 그와 같이 열심있는 자세로 일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족수련회를 3년간 계속 참석해왔다. 매년 받았던 은혜가 많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청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더운 날, 몸으로 뛰시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직접 일하시던 집사님들 뿐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매 식사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격려해 주신 장로님들의 사랑도 잊지 못할 것이다. 물론 같이 간 준호와 나도 평생 가장 힘들게 일해 본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족, 친구들이 도착해서 큰 불편없이 지내는 모습을 볼 때, 봉사의 깊은 의미가 어디에 있음을 알았고, 섬기는 자의 깊은 환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주께는 소리일가.

수련회가 시작하는 25일, 도착할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함께 간 준호가 “형! 내년에 군대 가더라도 수련회 선발대 올 수 있게 휴가 꼭정해봐요”라고 하던 말이 농담으로만은 들리지 않았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주님, 영광을 보나이다”

박연실(교구)

저는 지난 5월에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아직 교회생활에 적응도 되지 않았는데 다락방 식구들로부터 가족수련회에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먹함 뿐만 아니라 아이가 폐렴을 앓고 있던 중이라서 불안도 하고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수련회 등록은 일단 해 두었습니다.

조금은 믿는 마음으로 의사의 지시를 무시한 채 아픈 아이를 데리고 삼척에 도착했지만 점점 악화되어가는 아이의 건강 때문에 하루를 겨우 지나고서는 약간의 후회와 더불어 제 마음은 다시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곳까지 걸음을 인도하신 데에는 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주변 여집사님들은 한마음이 되어 우리를 위해 뜨거운 기도로 위안을 주었고 아이는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었어도 다 낫지 못했을 아이가 치유됨을 보면서 주님께 대한 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조금씩 커져감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부흥회와 특강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내 가정의 소중함과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즐겁게 살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며 그동안 남편과 자녀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것, 남편과 올바르게 대화하지 못하고 행복을 가꾸어가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이 웃음을 잃지않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헌신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려 합니다. 남편을 소중히 여기며 자녀를 지혜롭게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 가정의 힘을 삼고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신 가르침을 잘 새기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은 내 약한 믿음이 예상치 못했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련회 속의 여름성경학교

잊혀지지 않을 내 마지막

김재연(초동부, 6)

이번 여름수련회는 나에게 국민학생마회가 되기 때문에 기대도 컸고 아쉬움도...

예전에는 시간에 쫓겨 약간은 피곤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수련회는 워매임이로에서도 비교적 알차게 지낼수 있었다. 온전도님, 선생님들의 애쓰신 덕분에 썸터 너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 간은 지루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안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너무 고 나서의 피곤함도, 졸음도 물리칠 수별이 우리 주위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줄어올리며 돌보아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모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제일 재미있었던 시간은 역시 해변에들. 은 춤고 파도가 높아서 제대로 수영은고 도타기를 하면서 즐겼고, 둘째날 그 불만 맞은 날씨 덕분에 맘껏 놀 수 있었다. 파소 빠지고 빠뜨리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밤에는 선생님들의 보호아래 늦게 까지과 놀면서 국민학생으로서의 내 마지막보냈다.

한편으로는 불만족하고 슬펐던 일도있. 여가 한 조가 되었던 것이 좋지 않았다.올고 따로 따로 떨어져 친하게 지내지 못했. 연습 때에도 한마음이 되지 않아서 힘이들.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동생스럽게도 했지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들이 함부로 하는 말에 기분이 상하기때는 친구 하나가 다쳤을 때 마음이 너무생겼 치료해 주셔서 빨리 낫았지만 그래도라고 생각하니 나도 마음이 아팠다.

비록 그렇게 몇가지 좋지 않은 일들.들과 마음껏 뛰고 소리 지르면서 친해.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다는 것.리들에게 참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마지막 수련회를 즐겁게 보내도록 돌보.께 한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다음에도 이런 수련회가 또 있었으면



◆ 같은 장소, 새로운 은혜

순간의 선택, 성·공·에·감!

이 지 은 (중동부)

◆ 보다 더 온전한 다음을 위한 제언

수련회 유감(遺憾)

박 동 춘(집사, 차량봉사 위원)

생지막 수련
음다.크하지 못한
이른 가운데
나. 이 목사님,
생 속에서부
들리기를 약지회 기간동
무 물놀이하
수히 밤낮없
즐리고 함께
의습은 오래에이다. 첫날
은! 대대로 파물론 한 듯 알
파리지르고
나 모른다. 또
지하고 친구들
마를 즐겁게도보다도 남
나리지 못하
했다. 손극이일 때도 그
동로 나를 쏙
때문에 그
보다가 좋아하
구님이 정성아꼈을 거
들지만 친구제의 사랑도
인도련회는 우
다로서의 내
보님들과 함

올해도 또 삼척으로 수련회를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두번이나 갔던 곳이라는 생각에 기대감 보다는 실망이 앞섰다. 오랜 망설임 끝에 장소는 같더라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갖기를 기대하며 짐을 챙겼다.

고속도로에서 막힘없이 예정보다 3시간이나 이른 도착. 예감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3박 4일이 지나기를 바랐다.

부흥회 시간.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우선 재미있으면서 전혀 새로운 분위기였고 많이 웃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족을 떠올리며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해변에서의 낮시간. 구름에 가린 햇빛과 높은 파도로 예년과는 다른 완벽한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

식사 시간마다의 형식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외워야 했던 요절은 마음에 남아 식사시간이 작년과 다르게 여겨졌다.

자유시간이 많아 여유있었고 자율적이고도 편한 가운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도 서울의 찌는듯한 더위를 피해 때로는 추위를 느낄만큼 너무도 시원한 날씨와 상큼한 강원도 공기가 내 몸과 마음에 휴식이 되었던 것 같다.

부흥회 시간을 통해 우리 가족과 나 자신의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았고 좋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너무나도 즐거웠던 시간들, 비를 맞으며 예배를 드렸을 때도 있었지만 신선한 바람도 자주 불고 햇빛도 뜨겁지 않아 서울에서의 무더위를 잊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등을 생각해 보면 비록 망설임 끝에 갔지만 후회없는 선택이었다.

큰 사고 없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해마다 거듭되는 가족수련회 때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지...해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좋은 예감으로 내년 수련회를 기대해본다.

‘유감’이라고 하니 마치 불만을 이야기하는 인상을 주기 쉬우나, 이는 다음에 치를 교회행사에 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반성을 해보자는 뜻에서 붙여본 것이다.

우리 교회의 「홍해작전」은 전교인 영성훈련에 주안점이 있다면 「전교인 가족수련회」는 공동체 훈련을 통해 일체감을 가지려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사의 준비, 계획, 진행의 모든 단계에 결과를 예측해 보고 기도하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후보계획까지 수립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여야 한다.

이번 수련회는 자유로운 가운데 은혜롭게 마쳤지만 조금 더 성숙하고 수준 높은 다음의 행사를 위해 몇가지 지적해 보고자 한다. 보다 온전히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먼저, 내 탓으로 인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몇가지를 자문해 볼 것이 있다. 그리고 일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첫째, 공동체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해 한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권유하지 못하고 반쪽만 참여하지는 않았는지.

둘째, 준비위원 전원이 푹푹 뭉쳐 전반적인 일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보다 온전한 봉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수백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교회의 큰 행사의 준비위원들이 조금 더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한치도 차질없는 완벽한 진행을 할 수는 없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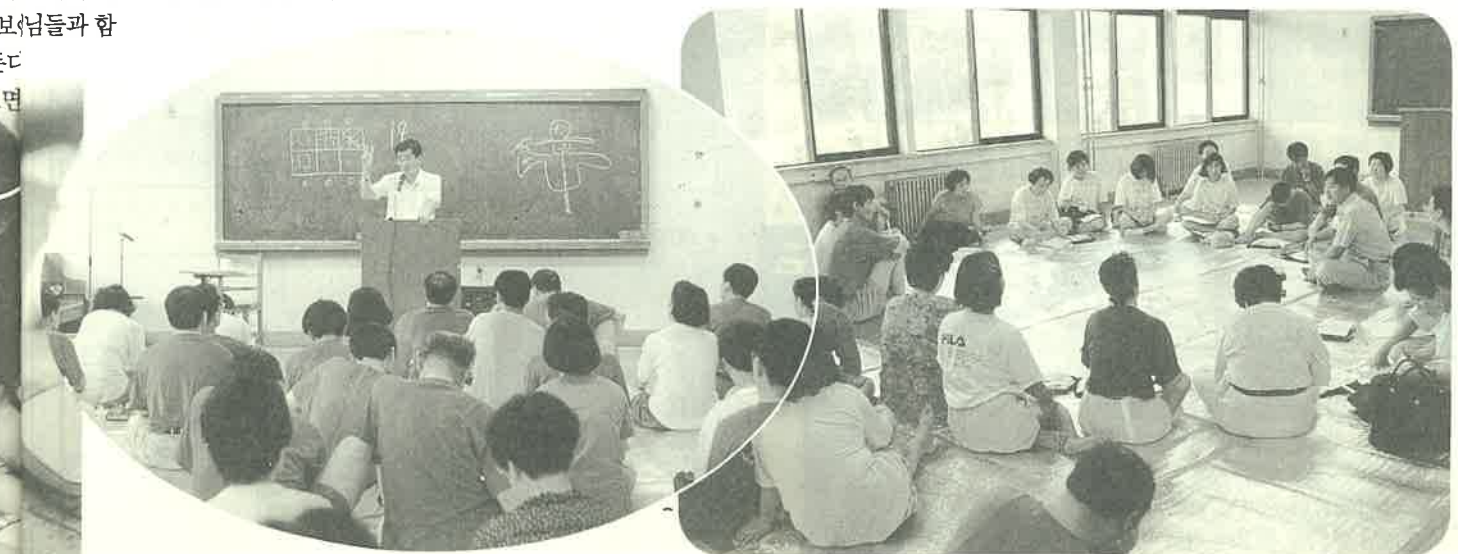
셋째, 가장 위험한 임해훈련 시에 너무 군인들에게 의존한 것은 아닌지. 보다 조직적인 통제가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넷째, 공동체훈련을 위한 단체 행동 중 각자에게 개인행동을 자제했어야 했던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다섯째, 프로그램 진행 중 시간과 장소를 슬며시 이탈하여 개인적으로 행동하거나, 자기 안일함을 구하는 일에 시간을 소용한 일은 없었는지.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우리 중 극소수자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어떤 것은 준비와 진행을 맡은 이들에게 국한된 것도 있지만 보다 온전한 '95 여름수련회를 위해 아주 적은 아쉬움들을 감히 적어 보았다. 위에 지적한 몇가지 아쉬움은 대부대가 이동한우리 전체의 훌륭함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의 준비로 결과에 대한 결점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에 위원으로 선정된 일꾼들은 맡겨진 일에 대해 사전에 계획(Plan Ahead)하고,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제시(Suggest New)하며, 자기 담당분야를 끊임없이 연구(Study Your Job)하여 아론과 훌처럼 앞에서 이끄는 이의 지도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부서의 수련회

아름다움일랑 오래도록 잊지말자

송민선(청년부)

총총 벌이 박힌 까만 밤하늘 밑에서 서울로 담아가고 싶도록 맑고 시원한 공기를 가득히 호흡하던 수련회에서의 여러가지 일들을 떠올려 본다.

모처럼 주어질 수련의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한달 전부터 기도회로, 조장공부로 모여왔던 청년 회원들은 마르다의 열심과 마리아의 더 좋은 선택을 지혜롭게 절충하자는 의도에서 교회 전체의 프로그램과 우리 힘이 필요한 곳은 일들을 회피하지는 말되 그룹토의를 위한 우리들만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활용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었다. 이번 수련회 기간동안 우리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현주소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기 위한 우리 가정 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적용점을 찾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다.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부흥회와 특강, 그리고 우리끼리 틈나는대로 마라톤식으로 이어간 토론에서 가정에 대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며 토론할 수 있었고, 새벽기도회 후에 디도서를 본문으로 한 큐티와 나눔을 통해 남자와 여자, 사랑, 연애, 결혼 등에 대해 성경적, 기독교적 답변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토론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은 그 토의가 이루어진 다섯개의 그룹마다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련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은 대부분 회원이 유사하게 경험한 것 같다. 매주일 집회시간에 잠깐씩 만날 때는

잘 모르던 형제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감탄해 마지 않는 일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에게 잠재해 있던 은사를 발견하게 된 일 등은 각자의 생활과 진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서의 공동생활을 통해 양보와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많은 대화가 오갔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만 아는 유행어가 만들어졌고 어느새 마음문이 열려 설새없이 웃음꽃이 피었다. 형제들은 틈틈히 운동을 통해 몸을 부대끼고 땀을 흘리며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하는 양했다. 평소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기 어려웠던 형제, 자매를 찾아가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라는 복음성가를 어색하나마 의지적으로 부르던 시간도 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마지막날의 우리는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주리고 목말라 있음과 각자의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들이 모두 절실함을 알게 되었다. 모든 가정에 치유되어야만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간 우리는 산재해 있는 일들에 대해 아킬 줄을 몰랐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아뢰었다. 그리고 한사람이 청년 회원 전체를 만나며 기도하도록 고안된 '터널식'이라 일컫는 방법의 중보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가정과 미래를 위한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축복으로 밤이 깊어 갔었다.

우리는 '수련회의 은혜가 식기 전에 더 힘을 내서 무언가를 더 하자'는 식의 이야기는 말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같이 못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고 수련회는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우리 삶의 연장선에 있었던 한 일일 뿐이며 수련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신앙체험들을 잠시 심신을 흥분시킨 각성제 정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과, 수련회를 통해 알게된 바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형제와의 연합함이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잊지 않기로 했다.

◆ 수련회 노트 중에서

"우리 가정에서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 한가지의 성경적 목표를 세우라. 그것은 사탄의 장난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잠언에서 언급된 현숙한 여인이란 유능함을 포함한 것이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좌소로 만들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different)일 뿐이지 틀린 것(wrong)이 아니다"

"주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용납하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용기있게 하고 그들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는 가정 내에서의 상처에 있어 치유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며,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말며, 말의 지혜로 가정을 부드럽게 하고, 상처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정 내에서 옳고 정당할 뿐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이다."

농촌 전도단 파송식

- 오늘 찬양예배에 -

8월 1일부터 3일까지 충북 청원군에 있는 은성교회로 파송되는 농촌전도단을 기도로 지원하며 파송하는 예배를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에 갖는다.

전도단이 파송될 강외면 만수리에는 5개 마을에 450호 1200명의 주민이 있으며 은성교회는 장년 40명, 학생 30명이 출석하고 있다. 전도단원들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저녁 부흥회, 축호전도와 상담, 의료 진료, 미용·방역 등 지역 봉사활동과 함께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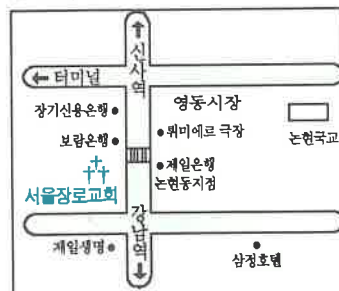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전교인가족수련회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가물어 매마른 땅에 생명의 단비를 허락하십시오. 농촌주민과 교회들에 새 힘을 주옵소서.
3.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